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48. 여섯째 나팔(2)

2013. 12. 01.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시간이 되어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나팔 나머지 구절에 대한 말씀을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9:15~21]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16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훈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19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1. 지난 시간에 여섯째 나팔 첫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다섯째 나팔 사건을 이해했을 때에는 여섯째 나팔 내용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군사들의 무장에 대한 묘사 같은데, 설명을 들어야 하겠지요.

답: 우리가 이미 공부한대로 루시퍼가 광명한 천사처럼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셋째 나팔 사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이는 이 조직은 사실은 암흑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넷째 나팔 사건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땅에 떨어진 별, 셋째 나팔에서 나타났던 그 별이 이제는 무저갱의 사자가 되어서 자신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 장악한 그 조직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여 광명한 천사처럼 일해 놓은 그 조직이 진짜 핍박받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독교가 이슬람에게 핍박받는 줄 알게 하여 세상에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로 인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도 같은 사건의 연속이지요. 루시퍼는 아주 교활하게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은 하늘 성소에서 들려주는 기별을 깨달아 이 모든 것이 루시퍼의 속임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의 종말에 복음사업을 진행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진행을 잘 기억하면 나팔 예언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목사님, 셋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잘 정리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사들의 무장을 묘사한 것 같은 기록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목사님 지난 시간에 개신교가 비록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권교회에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하면서 슈몰크 목사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마저 하시고 다음 구절들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했지요?

답: 그랬네요.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 했습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푸른 풀과 수목은 두라고 했지요. 그들은 이 핍박 시대에 지하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인정을 받았으나 여전히 로마교의 핍박을 받다가 1700년대나 되어서 그 일이 멈추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이야기 하면서 1672년에서 1737년까지 생존한 종교개혁교회 목사인 슈몰크(Benjamin Schmolck) 목사의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라는 찬미가 쓰여진 배경을 이야기하려고 했지요. 당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수도 많지 않았고, 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목회자가 돌봐야할 범위가 엄청 넓었습니다. 즉 교회는 적고 개신교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소수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그 넓은 지역을 방문하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는데, 슈몰크 목사는 교구를 방문하면서 당일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자주 개신교 예배당을 습격했습니다.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도 벽에 구멍을 내고 지붕이 뚫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고, 때로는 무리를 지어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폭력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는데 목회자에게는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날도 집에는 아직도 소년인 두 아들만 남겨두고 내외가 먼 곳에 방문을 갔습니다. 불가불 다음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집이 완전히 불에 타고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놀란 가슴을 쓰다듬으며 재가 된 집을 뒤지는데, 두 아들이 꼭 껴안고 새카만 재 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슈몰크 목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시가 바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라는 찬미 시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개혁교회가 국가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또 종교 사회에서 1700년대까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핍박은 없어졌어도 문화와 사회분위기에 의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교회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지킨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군사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변질된 조직들을 공격했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3. 그런 일이 그 찬미 배경에 있군요. 당시 프로테스탄트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 사건으로 변질된 교회 조직이 정권까지 잡고 있는 그 나라를 이슬람이 공격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게 되었군요.

답: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나팔 사건은 하나님의 참 진리와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숨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 것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작위적인 것이기보다는 부작용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4. 작위적, 부작위 적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 같은데요. 무슨 뜻이지요?

답: 이것은 법률 용어 같은데, 작위적이라는 것은 직접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부작위적은 직접 하지 않으므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누군가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고만 있어서 폭력당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폭력을 방조하는 부작위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를 바르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엉터리 설명이면 용서하시고 의미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것처럼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루시퍼가 행하는 일을 막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으로 나타난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5. 예, 용어가 바르게 설명되었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의미는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작위적인 것도 있고 부작위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나팔 사건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부작위적인 심판에 해당하는 사건들이겠군요.(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음 구절을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 그렇게 합시다. 시작할 때 읽었지만 다시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계9:16,17]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씀은 년 월 일 시 동안 사람 3분의 1을 해할 세력에 대하여 묘사한 것이지요. 그들은 마병대입니다. 기마군(騎馬軍)을 뜻하는 것이지요. 말 타고 전쟁하는 군사들입니다. 요한이 그 수가 2만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요한이 세어본 수가 아니지요. 누군가 요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천사거나 아니면 주께서 친히 들려주셨을 수도 있지요. 144000도 요한에게 그 수를 들려주었지요. 아마도 이 수를 요한에게 세어보라고 했으면 세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라고 표현했겠지요. 요한이 계시 중에 본 모습들을 자기가 아는 언어를 동원하여 표현했습니다. 계시를 주시는 주님께서 이것은 이런 단어로 표현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고 형상들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는 들어서 기록했고, 말들과 그 탄 기수들을 요한이 본 것을 요한이 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묘사했지요. 이제 읽은 대로 불빛, 자주빛, 유황빛의 가슴보호용 갑옷을 입었습니다. 또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처럼 보였고, 말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왔습니다. 이만만은 2만곱하기 만이니까 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수가 아니라 아마도 상징적인 수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멸상시키기로 목적하는 사단의 세력의 총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쟁에 2억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구약성경에서 “천천”이나 “만만”은 문자적인 특정한 수를 의미하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를 가리키기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9,10절에 나타난 심판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있는 천사들이 천천이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섯째 나팔에 동원되는 루시퍼의 군대는 더 많다는 의미로 2만만이라고 들려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391년간 동원된 핍박하는 세력들의 총수를 뜻할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들은 엄청 많은 핍박의 군대를 동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쟁에 투입된 군사들의 장비는 여기 묘사한 대로 두

려울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그 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묘사된 군사들의 군장 모습은 특이하고 이상한데 어떤 모양을 뜻하는 말일까요?

답: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는 표현이지요. 여기 불빛은 빛나는 붉은 색, 자주빛은 검붉은 색, 유황빛은 누런색을 가리킵니다. 이 말 탄 군사들이 무엇으로 공격하는지 그들의 몸에는 공격용 무기를 기록하는 대신에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묘사합니다. 그것이 공격용 무기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다고 했는데, 아마도 군인이 맹렬한 속도로 말들을 몰아 전진할 때에 바람에 날리는 말의 갈기와 헉헉거리는 말의 입 모양이 계시를 보는 요한의 눈에 갈기가 무성한 사자의 머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묘사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겨누고 총알을 쏠 때의 모습이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이슬람 군인들이 새로 만들어진 신무기로 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총을 겨눌 때 총열을 사람의 입 가까이 가져가지요. 그리고 눈으로 조준구를 통하여 상대를 겨눕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니까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으로 보였지요. 아주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7.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그럴것습니다. 총을 겨눌 때 총열은 불에 바짝 갖다 대고 조준구로 목표물을 조준하고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데 계시 중에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것습니다. 총열의 방아쇠가 있는 부분이 아주 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그렇다니까요. 정확한 묘사입니다.) 다음 구절은요?

답: 18절인데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리라.” 당시의 신무기인 총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에 있는 힘은 신무기인 소총을 가리키는 말이고, 꼬리에 있는 힘에 대하여서는 꼬리가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한다고 했습니다. 뱀 같은 꼬리에 머리가 달린 모양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계시 중에 본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오토만 군의 군기에 말꼬리가 그려져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사용한 신무기 대포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대포를 본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말들이 바퀴달린 대포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마치 말 꼬리에 굵은 뱀이 달려 있는 것 같이 보였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꼬리로 보이는 대포 포신에서 포탄이 발사되는 것이 마치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8. 역시 여섯째 나팔도 이런 사건으로 보지 않고 내면적인 영적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겠지요?

답: 그럼요. 그런 학자들이 많지요. 역사적 사건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 수가 적을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사건을 이슬람 터키의 활동으로 적용한 최초의 학자는 스위스의 개혁자 하인

리가 불링게르(Heinrich Bullinger)였는데요, 마르틴 루터도 이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에서는 유라이아 스미스를 위시하여 역사주의 해석을 따르는 학자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따릅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학자들이 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해석의 통일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지요?

답: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단의 활동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봅니다. 묘사한 모습이 괴상하고 무섭잖아요. 사단의 무서운 모습을 형상화하여 표현했다고 보지요.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에 의한 재앙이라고 설명하지요.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로 오류를 퍼뜨리는 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사9:15에서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진리를 어지럽히는 일을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다섯째 나팔에서 시작한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면 더욱 깊어지고 강하게 역사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세계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설명은 계시록에 어떤 기록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 해석이라는 것은 편리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낸 중풍환자를 고치실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참람하다고 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해도 그가 참으로 죄 사함을 받았는지 사람들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그가 정말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그 말한 사람에게 그런 권능이 없다는 것이 폭로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으면 감히 그런 말을 못하지요. 그러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어떤 종교가들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또 영적 적용은 어느 시대 어느 기록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잘못된 것이 드러날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정말 역사적 사건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잘못 해석한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0.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설명이 확실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예수님은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사건으로 성취될 예언들은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확실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기 전에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조시아 리치 목사의 해석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해석을 했습니다. 잘 맞았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 나팔, 아니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도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

시록이 역사적 사건을 입체적으로 예언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4각 기둥의 각 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 기본 원리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런 시각으로 볼 때에는 제가 설명한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믿지요. 그러나 계시록 예언이 입체적이 아니고 평면적으로 또는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보면 제 설명은 수용될 수 없고, 또 영적해석을 중심으로 말해도 수용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이 다니엘 전체 해석의 프레임이라고 한 것을 생각해봅시다. 계시록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내용이 발전된 상태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장 이후가 그렇습니다. 또한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이 그렇습니다. 것처럼 계시록은 역사적 사건의 예언입니다. 일곱 교회가 전체적은 프레임입니다. 그것이 1:19,20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구절 공부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입체적 구성과 진행이라고 이해하면 저의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11.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잘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계시록 자체를 깊이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뢰아 교인들처럼 성경으로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을 살펴야 하겠는데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우선 말씀을 읽은 다음에 시간을 생각해봅시다.

[계9:20,21]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의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죽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자기의 그릇되게 배운 종교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적 적용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변질된 교회에는 우상이 즐비하지요.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바로 이런 우상으로 인하여 변질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닥친 심판의 모습인데도 그런 것에 매달려 있는 교리와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사람 우상, 곧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을 한 달간 우상으로 섬기게 했던 것처럼 산 사람 우상을 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보지요. 그런데서 전혀 돌아설 기미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여전히 세상 정치권력을 행사합니다. 복술과 음행을 하는 것이지요. 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어서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도적질 합니다. 복술은 죽은 자들의 영혼과 관계있지요. 영혼불멸을 믿는 것은 복술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팔 사건으로 주신 계시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은혜 시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기별이 있잖아요. 은혜 기간이 끝났으면 회개하라는 기별이 없어집니다. 지금 아직 은혜 기간이고 여섯째 나팔까지 사건은 아직도 은혜기간 동안에 있는 사건임을 분명히 하는 기록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굴복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기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